



불서읽기 캠페인

향성(香聲)

묘엄 구술 · 김용환 엮음 | 불경사승가대학 펴냄 | 1만2000원

## 백련향의 음성 글로 엮어

“불가에서는 향냄새를 마치 아름다운 소리와 같다고 해서 향성(香聲)이라고 표현해. 향로에 불을 담아 목향을 피우고 마지를 올리면 연기 올라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 향연(香煙)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했는데, 내 마음에는 그 모습이 지금도 환하게 그려져 있어.”

〈향성〉은 한국불교 비구니스승가교육의 큰 스승인 세주 묘엄(봉녕사 승가대학장·사진) 스님의 출생과 인생 여정을 담은 출가유행록(出家遊行錄)이다.



“니가 잘 배워갔고 승중(女僧)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큰 중이 되면 안 되나?” 성철스님의 권고로 1945년 봄 율필암에서 단오 날에 월해 스님을 은사로 삭발한 스님은 격동의 정화 불사가 한창이던 때의 산승인이 되었다.

칭답스님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성철스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인간세(人間世)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의 미묘한 향기는 80여년 근현대 불교의 기나긴 기억의 타래를 풀어놓는다. 스님이 떠올리는 칭답 스님의 출가는 생사발심(生死發心)이었다. “참선을 해서 자아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꽂 았어. 부처님이 출가한 것 하고 거의 비슷해. 한가지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어머니로서는 하늘이 무너졌지.”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스님의 개인적 속가(俗家) 생활을 포함하여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에 이르는 남자(男子)의 세월이 막힘없는 강물처럼 굽이굽이 흐른다. 1940년대 당시 승가의 일상생활과 수행 풍습·해방 후 봉암사 결사·한국 비구니강원의 성립 과정을 그대로 전한

다. 향을 태운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옆으로 드러눕기도 하고, 곧장 위로 올라가기도 하는 것 마냥 스님의 삶도 그러했다.

간행은 스님의 연보(年譜)가 작성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답하면서 출가행장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찬하되 스님의 진주 사투리가 지닌 역사성을 인정하여 구어체의 생생한 느낌을 손상 없이 전한다.

기연숙 기자 ornflower@daum.net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정기용 지음 | 글올림다 펴냄 | 1만1000원

## 법과 문화의 향기로 날마다 좋은날



법학자의 냉철한 이성을 감성으로 조율한 수필집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좋은 날도 있고, 그른 날도 있다. 오늘, 아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 순간과 오늘을 잘 보려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될 것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 저자 정기용 교수(건국대 법학과·사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교다. 대학 시절 칭답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화를 받아 불교

에 입문했다. 성철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수십 년째 정진중이다. 마음을 관조하며 생활하는 사람, 기쁜 날은 신나서 좋고 슬프거나 불행한 날은 그 원인을 알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증강할 수 있으니 그 역시 좋은날이라고 말한다.

25년간 저자가 잡지와 신문 등에 발표했던 법(法)과 차(茶), 불교와 참선, 그림 감상 그리고 문화유적 답사와 관련한 수필 26편이 수록됐다. 그는 지금도 거의 매일 인사동에 들른다. 화랑에서 바위 봉우리 위에 푸르고 당당히 자라는 소나무와 만나면 그런 이의 기백과 대화를 나눈다. 머무는 바에 충실히 하루 중 일 화두를 들며 참선으로 정진한다.

세상에 생한 것은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사람으로 태어남에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스스로가 주인공인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차를 마시는 기쁨을 알고 그림과 미술인의 만남을 즐긴다. 중국 땅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며 고구려인의 힘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진취가 있다. 저자와 세상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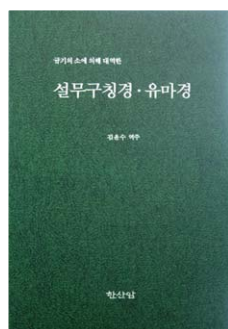
기에 담긴 30년의 화두를 따라 부담 없이 그와 함께 동행해보자. 법과 인사들의 문화 그리고 문화유적의 향기로 그윽한 날마다 좋은 날이다.

저자는 미술과 불교 분야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저술과 자문을 통해 미술인들과 불교 수행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공로로 미술협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런 미술인’ 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기연숙 기자



## 역경의 의문 해소하는 길



설무구칭경·유마경  
김윤수 역주  
한신암 펴냄 | 2만5000원

현장 스님이 번역한 <설무구칭경(設無垢稱經)>과 구마라집의 구역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을 대조해서 볼 수 있는 번역서가 출간됐다.

대승불교 초기에 편집되어 <유마경(維摩經)>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어 온 대승불교 선언문이다. 불교의 교(敎)·리(理)·행(行)·과(果) 전 부분에 대하여 대승의 시각을 선명히 한다.

구마라집 역의 <유마힐소설경>이 불교의 근본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번 번역 작업이 시작됐다.

역자는 <성유식론>을 공부하면서 그 논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료한 주석의 <성유식론술기>에 매료된 바 있다. 현장의 문인이었던 규기 스님(632~682)이 현장 역본인 <설무구칭경>에 대해 <설무구칭경소(전6권)>로 소상한 주석을 남긴 바 그 뜻을 잇고자 한다.

이 역주서는 <설무구칭경>의 한역문을 본문의 오른쪽에 두고 그 왼쪽에 한글 번역문을 실었다. 한글 번역문은 소의 내용에 의거하여 과목을 나누었고 뒤에 실은 <유마힐소설경>과의 대조의 편의를 기한다.

<설무구칭경> 본문에 대한 소의 설명은 각주에 수록하였다. 구역 <유마힐소설경>을 읽을 때 현장의 신역 경문과 그 소의 내용을 주석으로 삼는다면 역경의 의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법산 스님 지음  
신경출판 펴냄 | 3만원

“믿음은 깊은 뜻을 건너니 마음은 다스리는 뱃사공이라. 부지런한 노력으로 괴로움 없애고 지혜로써 피안에 도달하리라.”

## 신앙생활의 백과사전

법산(여래암 주지) 스님이 반야의 언덕으로 향하는 지도를 체계적으로 엮은 의식집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공의식을 재가 불자들이 함께할 수 있고 자가(自家) 기도 때에 도움이 되도록 편찬되었다. 한국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를 위한 시대적 책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한 원력의 성과이다.

법회의 기본 예법과 찬불가를 시작으로 가장 많이 독송되는 천수경과 반야심경은 한문과 한글로 함께 실었다. 각 단의 불공과 진언뿐만 아니라 각종 발원문을 포함하여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자세를 담았다. 내면탐사와 여래 ‘33천통기도법’은 여래암의 특색 있는 기도법이다. 철저한 기도 불공의 지침서로 완성되는 여정에는 발행을 위한 실천 시주 제자들의 불사가 있었다.

불교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완성된 신앙생활의 백과사전이다.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육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중영 외	운주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완철	들
4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7	이발로키테스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8	절을 기차게 잘 하는 법	창건	뫼타의 마을
9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도
10	기적의 108배 건강법	조한주	시림과 책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복상불소영가천도**  
실물크기(소) 3.5×5cm (중) 5×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본원품 묘법연화경 요품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밭을 마음껏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병풍 (관세음보살 본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35×50cm (대) 42×65cm

올마니반 매홍족자 60×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 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열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흥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